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 1독서 : 집회 3, 2-6, 12-14

제 2독서 : 골로 3, 12-21

특 음 : 마태 2, 13-15, 19-23

숲 정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 3, 14)

강 련

소 리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김준호 신부 / 월명동 천주교회

금년 한 해 동안 고교생 90명, 중학생 52명, 국교생 6명 총 1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다고 한다. 그 원인은 가정문제가 70건, 염세 비판 35건, 성적 불량 10건, 신체 결함 8건이었다. 가출 현황은 총 11, 363건중 여학생 5,935건, 남학생 5,428건, 국교생 79건, 2년 내에 23.1%가 증가했다는 보고다. 직접 키우는 자식은 없지만 참으로 마음이 아픈 통계다.

우리 어른들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가정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점이 없지는 않는지,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다’라는 말. 도대체 가족들 모두가 다 한집에 머물면서 그저 먹고 자는 일만 되풀이되는 하숙생일 뿐, 한 가족이라는 일체감 속에서 서로의 정을 확인하고 따스한 말이라도 오갈 수 있는 대화라고는 한 번 기회도 없이 하루하루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 갈 뿐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성당에 다니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리를 배우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가정 안에서 부부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이런 것에서부터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몸으로 깨달은 사랑을 자기로부터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사회 안에, 이 세상에 그 사랑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한 가정 안에 참으로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 사랑에 슬기로운 부모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로 자라도록 도와주고 방향 잡아 주는 부모들의 노력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오늘 성가정 축일에 우리네 가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마땅한 위치에서 당연한 의무를 다시 한 번 추스르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덕을 성가정을 이루신 세 분께 구하자.

얼룩진 한 해를 보내며

올 한 해를 어떤 한 마디로 압축해 말할 수 있을까.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든가 격동(激動)의 한 해였다는 표현으로는 심드렁한 느낌이다. 대구 가스폭발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빚어진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정권찬탈과 부정축제로 전씨와 노씨 두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각종 사건과 사고로 수많은 실망과 좌절을 맛보았다. 1년 내내 하루도 한 가히 숨 들릴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섰다. “내년에는 좀 좋은 일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제야의 종소리는 다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과 고별하는 경종이고 새로움을 알려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새로움이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제와 다르면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라 할 수 있겠다.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5공의 정통성 회복’을 내세우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씨도 입을 열고 노씨 또한 비자금 사용처를 만천하에 밝혀야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대선자금 공개로 지난날의 잘못을 시간의 저편으로 날려 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기약할 수 있다. □

숲 정 이 산책



형제는 얼마나 젊으셨습니까?

성서교실 67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창세50장)

요셉은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운다. 죽은 시신에 입을 맞추며 슬퍼하는 장면은 성서에서 매우 드물게 나온다. 요셉은 야곱의 시체를 에집트의 장례풍습에 따라 미이라로 만든다. 에집트인들은 영혼의 미래의 안식처로 죽은 몸을 보존하려고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시킨 맹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잠깐 에집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락을 주십사고 청한다. 파라오가 쾌히 승낙하자 에집트의 문무백관들과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야곱의 집안이 모두 요셉을 따라 나선다. 이 화려한 장례행렬은 몇 세기 뒤에 야곱의 후손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 도망가게 될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형제들은 서로 모여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보복하려 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형제들은 처음으로 요셉의 용서를 공식적으로 청하는데 아버지의 당부말씀을 곁들인다. “형들이 악의로 한 일이건 어떻게 마음은 잘못 먹고 한 일이건 못할 짓 한 것을 용서해 주어라 내 아버를 돌보시던 하느님의 종들이 비록 악의에 찬 일을 했지만 용서해 주어라” 야곱이 이와 똑같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형제들이 중간에서 덧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청하는 형들의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다. 요셉은 에집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드러냈을 때처럼 운다. 아직도 형들은 자신의 마음을 풀라 주는가?

형들도 울며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다오”하고 비굴하게 청한다.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형들의 잘못 뒤에 높은 분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형들의 과오를 심판할 자격도 처벌할 권위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형들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 오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형들뿐만 아니라 형의 자식들까지도 잘 돌봐 주겠다고 약속한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양자로



삼아 자기 아들들 향렬에 올려 놓았듯이 요셉도 므나세의 아들 마길의 낳은 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받아 양자로 삼았다. 요셉은 모든 친척과 후손들을 모아 놓고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느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마고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고 예언한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시신도 약속의 땅에 옮겨 주도록 요청한다. 그의 요청은 형제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다(여호 24, 32). 성조들의 이야기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 곧 약속된 땅 팔레스티나를 향해 열린 희망 속에서 끝난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성조들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인간의 구원을 갈망하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방적인 초대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인간이 펼치는 대드라마의 기록이다. 이 드라마는 수많은 신화와 민담, 상징과 표상과 시어들을 통하여 인간과 하느님에 관한 영원불변의 진리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서 인류의 선행과 죄악, 용기와 좌절, 희망과 절망, 순례와 방황의 발자취를 만나며 이런 복잡한 인간사들에 민감하게 반응해 오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당신 안에 귀결시키고 완성시킴으로써 총체적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난다.

하이패션
마드모아젤 전주점 오픈
 <구·라모드>
 나 경 섭(안셀모)
 오 정 애(쥘 마)
 전동백화점<->기린오피스텔 중간
 ☎ 88-8620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라디)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주)이삭 온돌침대「파워스톤」
 수백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법, 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데레사)
 전북대리점
 ☎ (0652)75-9824, 77-6587
 호출기 012-687-8842
 휴대폰 011-651-7124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A/S 전문점
 • 6개월 무이자 판매
 • 36개월 월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84-9989

잡간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미래를

- 1월 1일 평화의 날 메시지 -

새해 첫날 우리는 평화의 날을 매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날은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8년 1월을 선포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평화의 날은 생명과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이 지닌 가장 높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6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어린이들과 한 번도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어린이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신뢰에 차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인내를 강조하던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강대국에 눌러 있었던 인종과 종교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걸잡을 수 없는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내전에 휩싸인 보스니아, 소말리아, 아르메니아, 르완다, 이라크, 앙골라, 버마 등에서는 이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최대 희생자는 어린이들이었습니다. 8살 짜리 아이가 전쟁에 끌려나가고 그 가운데 전쟁에 희생된 아이가 150만 명이 넘고, 불구가 된 어린이가 400만 명이 되고 강간당한 어린이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20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지구상에서 어린이가 병사로 활약하는 곳은 35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어린이들에게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되라'(마르 10, 14-25)는 말씀에 따라 세계의 어린이들을 기억하면서 모두 하나가 되어 온갖 폭력에 맞서 싸우며 전쟁을 종식시켜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더욱 일치된 형제애의 세계를 우리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미래를 줍시다.

교구 소식

1. 교구 신년하례식 및 교구 감사의 날 : 1월2일(화) 오전10시30분, 목원 예식장
2. 부제 서품자 피정 : 1월2일~2월1일 수류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 1월6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4. 사목교서 연수회 1차 : 1월7일(일) 오전10시30분, 전동 성당
5. 남성 52차 꾸르실료 : 1월4일~7일 천호 피정의 집
6. 58차 M.E 재모임 : 1월6일(토) 오후3시, 서신동 성당
7. 성모 기사회 : 1월6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8. 가톨릭 약사회 신년미사 : 1월3일(수) 오후2시, 가톨릭센터 2층 성당, 지도신부-강인환 신부
9. 선택 주말 : 1월19일~21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젊은이, 문의 85-3637
10. 휘폴라레 모임 : 1월7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요심이 (1166) 김병우

주님 95년을 힘드 한해였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었고... 삼중 백화점어부러졌고

이북에 쌀 15만톤을 주었으나 쌀수출선이 억류된 사건이있었고

유조선 3척이 좌초되어 사고와 사건이 그렇게 많았나?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박진상 한의원
추나(허리치료) 전문
박진상
김정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북은행 옆)
☎ 241-5553, 242-5553

동서가구 서부대리점
· 혼수장, 아동장, 개비장
· 원목, 고전가구, 오크, 공예장
이건무(요한)
임성숙(카타리나)
효자동 서부시장 전북은행 앞
☎ 222-8384

익산시 쿠팡속판매센터
우성주얼리
예물 및 각종 원석 가공판매
김순희(세실리아)
익산시 영등동 224-2
☎ (0653)835-1660

LG 에어컨 전문점
* 96년 신제품 예약판매 *
· 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12% DC
· 기본설치비 무료 · 12월18일까지
원종삼(발바라)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251-0190~2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정한 날 정한 시간, 맥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고냉지 배추, 고추 등 양질의 양념과 심
적산 지하 115m 청정 암반수로 담아 연중
-2℃ 냉각 숙성시킵니다.
품목: 배추김치, 알타리, 파, 깍두기, 동치미
· 주문처: 순창 성당 영농조합 (0674)53-8040~1, 52-1004
가톨릭농민회 부설 동산매장 (0652)212-7442, FAX. (0674)53-0414

자매품: · 완전 무농약 진짜 순창 전통 고추장(오리농 무농약, 참쌀+유기농 무농약 고추 10개월 이상 전통 쌀아리 숙성) · 100% 우리콩 편장,간장 · 무농약 한미 참쌀 계화미
* 우리잡곡 파인분,사실분 인력주세요!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 예수 성탄 대축일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평화의 날) 미사시간 안내: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 * 의무 축일입니다.
- 2. 이 수녀님 피정: 1월2일~12일까지, 많은 기도바람.
- 3. 사목회 상임: 3일 저녁 7시
- 4.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4일 저녁미사 후
- 5. 모임: ①성심회, 자모회(3일 어머니미사 후)
②반회장 모임(4일 전 10시30)
③울프레아(7일 공식미사 후)
- 6. 96년도 교무금을 신입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에 신입바랍니다.
- 7. 금주 청소: 기린봉 1, 2반
저주 청소: 기린봉 3, 중노 15반

☐ 지난주 봉헌금: 1,096,820원 ☐ 교무금: 5,83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 예수 성탄 대축일 행사에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모임 안내: 반장회-12월31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사목회-1월2일(화) 후 8시30분 자모회-1월4일(목) 레지오 회합 후
- 2. 치주 모임: 꾸리아-1월7일(일) 후 2시 강당
- 3.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본당 어르신을 초대합니다.
①대상-65세(남, 여) 이상 ②장소-소강당
③일시-12월31일(일) 전 12시
- 4. 청년회장 개편: 96년도 한해를 이끌어 나갈 청년회장이 개편되었습니다. 회장-구건근(안토니오)
- 5. 성가 연습: 매주 수요일 후 7시30분, 성당
*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6. 청소 안내: 금주-상아탑, 차주-정의의 동정녀

☐ 지난주 봉헌금: 3,108,300원 ☐ 교무금: 4,832,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 ◎ 주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 1. 송년 성시간(성체 강복): 11~12시(이어서 새해 미사)
- 2. 1월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의무축일): 9시(초·중·고 미사), 10시 반(공식미사), 저녁 7시
- 3. 성체강복: 4일 저녁미사 후
- 4. 남성 제52차 꾸르실로: 1월4~7일, 전초
조운일 다투 형제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사목회 임원 사목교서 연수: 7일(다음주일)-전동, 오전 10시 반
- 6. 자모회: 4일(목) 10시, 사목회-7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성우회, 대건회: 7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7. 성탄 이웃돕기: 성인 복지원, 상지원, 작은 자매의 집, 아가페 정양원, 진달래 마을, 무지개 가족, 다가 경로원, 진북경로원, 인보의 집 등 9개 시설 및 다섯 가정에 사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금주 전례: 해설-정승준. 독서-조운일 부부.
봉헌-구본창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박상기 부부.
봉헌-김홍현 가족
성당 청소: 1월6일(토) 평화의 모후Pr. 천사의 모후Pr.
☐ 주일헌금: 1,954,110원 ☐ 교무금: 3,379,000원
☐ 이웃돕기 성금: 50,000원(요셉회, 익명) 과일 6상자(김 말다)
☐ 감사헌금: 621,000원(영세자) 100,000원(조 루시아), 10,000(신 수산나)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오늘은 성가정 축일-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신정): 내일(1/1) 10시미사
-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다음주일
③사목회-1월6일(토) 저녁 7시30분
- 2. 감사: ①성전보수비 봉헌-김단오(5만원) 주갑녀(2만원) 누계-9,499,700원 ②꽃 봉헌-강옥례(3만원) 강수제,묘동,김미남, 이상옥, 오철규, 원복순, 김영순, 김영진(2만원) 최영순, 안복례, 안아가다(1만원) ③불우이웃돕기 성미 모금에 도움주신 분
- 3. 사제양성 후원금 봉헌: 세대별로 1천원 이상(구역장에게)
- 4. 지속적인 성체조배 교육: 오늘(30,31) 미사중
강사-문재현 회장
- 5. 95년도 교무금을 서둘러 완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 6. 96년도 본당 운영예산 내역: 총 지출액-68,574,000원
교무금 수입예산-29,919,000원(작년대비 7,042,000원 증가)
- 7. 96년 새해 교무금 정성스런 신입 봉헌바랍니다.
- 8. 성당 청소: 금주-구세주의 모친Pr. 차주-신비로운 장미Pr.
- 9. 저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강덕용 ②김순희
봉헌-이준희 가정
1월1일(성마리아 대축일) 전례: 해설-이준희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이옥동 가정
- ☐ 지난주 봉헌금: 482,500원 ☐ 교무금: 1,146,000원
☐ 성탄 구유 봉헌금: 1,603,600원 ☐ 성탄 낮미사: 385,05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현

- ◎ 성탄 준비 및 사랑 나눔 잔치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아 난민 돕기 성금 1,000만원 초과
- 1. 송년미사: 31일(일요일) 밤 11시
(12월31일 7시미사는 송년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 2.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1일(월요일)
새벽 5:30, 10:30, 오후 7시
* 의무 축일입니다.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 3. 단물회: 2일(전 10시)
- 4. 성체강복 및 조배: 4일(전 10시)
- 5. 성모 성심회: 4일(후 3시)
- 6. 범자 불성체: 5일(후 2시)
- 7. 남성 52차 꾸르실로 입교: 황영목(테오도로) 많은 기도바랍니다.
- 8. 감사합니다: *X-max 추리용 전구 봉헌-남문노트사 원수관(야고버), 추리장상에 협조해주신 전병규(마티아) *제대 촛대 봉헌-정용주단 *제대 꽃 봉헌 20만원-사라희
- 9. 차주: ①제축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②애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요셉회(후 6시)
④울프레아(후 8시)

☐ 주일헌금: 2,178,0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미를 편안케 한다"(집회 3,6)
- ◎ 축하! 세례: 62분 형제 자매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 송년미사: 오늘 저녁 10시, 한해의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 1.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신년하례 의무미사 안내 5:30, 9:00, 10:30, 15:00(어린이), 19:30
- 2. 사목위원 사목교서 연수: 사목회 임원 및 제단체장은 의무 참여-7일 전 10시30분 전동성당 교육관, 회비-6,000원, 9시미사 후 출발. 3. 성체 강복 및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4일) 저녁 7:30 4. 유아 세례: 6일 후 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 5. 남성 꾸르실로 52차 강습회: 4일~7일(천호) 정경식(베네딕도) 6. 예비자 교리반 개강: 4일 저녁 7:30(목요일로 변경)
- 7. 구역 내미사: 3일 저녁 8시-12구역 1반(주공 501,502) 김동원(미카엘) 대 501동 807호, 5일 저녁 8시-12구역 2반(주공 503) 박옥엽(방지희) 대 801호
- 8. 오 말다 수녀님 피정: 4일~13일, 피정기간 동안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9. 회의: 부녀회-3일 어머니미사 후, 평화의 여왕 Cu.-7일 후 2:30, 성지회-7일 공식미사 후
- 10. 교구 신년 하례식: 2일 전 10:30 목원예식장 3층(본당 휴무)
- 11. 축하! 혼인: 7일 12:30 본당, 신랑-김정근(베네딕도) 신부-박미화(알렉산드리아)
- ☐ 지난주 봉헌금: 1,827,230원 ☐ 교무금: 5,763,000원
☐ 성탄 헌금: 2,879,150원

상설 고백소: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 성당(12월달은 쉽니다).